



## 古代說話에 나타난 愛慾모티프

### - 韓日比較文学 研究

A Study on the Motif of Lust in Ancient Narratives - Comparative Literature of Japanese and Korean Narratives -

---

저자 (Authors)	야노 타카요시 Yano Takayoshi
출처 (Source)	<a href="#">일본문화학보 10</a> , 2001.2, 31-45 (15 pages) <a href="#">Journal of Japanese Culture 10</a> , 2001.2, 31-45 (15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일본문화학회</a> The Japanese Culture Association Of Korea (Jcak)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23963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239636</a>
APA Style	야노 타카요시 (2001). 古代說話에 나타난 愛慾모티프. 일본문화학보, 10, 31-4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1.229.139.*** 2021/09/17 11:3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古代說話에 나타난 愛慾모티프

— 韓日比較文學 研究 —

야노 타카요시 (矢野尊義)\*

## < 要 旨 >

이 논문은 韓日양국의 古代說話에 나타난 愛慾모티프를 比較文學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한 것이다. 愛慾이라는 主題하에 共通話素가 많은 양국의 說話를 抽出하여 比較를 시도해 보았다. 古代國家의 形成과 함께 佛敎의 傳播를 전후로 해서 巫俗적 土着宗教에 떠받쳐진 그때까지의 村落共同體가 解體됨에 따라 사람들은 個人의 存在의 價値에 눈뜨기 시작하여 自我의 意識을 自覺하게 되었지만, 이는 男女關係에 대한 認識을 크게 변하게 했다. 부부의외의 남녀의 관계는 姦淫이 되어 동시에 사람들은 남녀간의 肉慾을 문제로 삼게 되었다. 佛敎의 影響도 있고 종래의 男女관계는 愛慾이라고 해서 최대의 煩惱로 간주되어 苦悶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解脫하려는 이야기가 解脫說話이지만, 여기서는 愛慾에 지지 않고 반대로 남성을 煩惱에서 解脫시켜 훌륭한 修行者로 만드는 여성 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愛慾을 克服할 수 있는 것은 精神的 사랑이겠지만, 이렇게 韓日양국에 있어서 古代末期라는 時代를 중심으로 人間의 큰 精神的 變化 또는 成長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key word : 愛慾, 사랑, 解脫

## 1. 序論

일본 고대설화집인 『곤작모노가타리집(今昔物語集)』에는 <애욕(愛慾)>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것을 주제로 삼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 이들 설화에서 애욕의 결말이 죽음이었거나 파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욕망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 世宗大, 日本古典文學

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많은 일본 설화는 승려(僧侶)에 의해 기록된 경우가 많고 『今昔物語集』은 12세기경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고대 말기에는 이러한 <애욕>에 대한 인식이 승려를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8세기 초에 형성된 『만요집(万葉集)』속에 있는 남녀간의 창화(唱和)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직 남녀간에 일대일의 배우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일본 상대시대에 있어서도 인간은 특정한 이성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가 있었고 그 사랑의 감정은 아주 귀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당시에는 남녀관계가 인간에 있어서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감동 있게 불러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남녀관계에 대한 표현은 8세기까지의 가요나 일본 시가와 12세기경에 모은 설화는 크게 달라진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본고에서는 일본 고대설화에 새로 등장한 <애욕>모티프에 대해서 이것의 참된 뜻이 무엇이며 왜 이 개념이 일본 고대설화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 모티프가 일본 고대설화 속에 싹트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본 최대의 고대설화집인 『今昔物語集』과 한국의 고대설화집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유사(三國遺事)』와의 비교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 2. 姦淫說話

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일을 말한다. 일본 고대시대와 같이 인간사회에서 아직 <배우자>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시대에서는 <배우자>라는 말조차 없어서 <간통>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역사가 진행함에 따라 <배우자>라는 존재가 다른 이성과는 명확히 구분됨에 따라 그 한 쌍 이외의 관계를 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식(意識)이 발달하여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한 비난의 정(情)이 확산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법제도적 사회발달의 진행에 앞서 <간통>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회풍조가 차츰 형성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을 집단적 사회 공동체의 일부로 보는 고대 농경사회나, 농경의례를 중심으로 하는 무속(巫俗)적 제사 공동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자아(自我)의식의 눈뜸과 함께 해체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논했다<sup>1)</sup>. 결국 개인(個人)이라는 존재의 가치에 눈뜨기 시작한 인간은 재산의 공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성의 공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정조관념이 강해지고 그것에 의한 각종 법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 간음(姦淫)이고 일본의 고대설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대설화에서도 이런 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으며, 비교적 모계사회의 요소가 후대까지 잔존해 온 일본의 그것과 비교가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간통에 대한 이야기를 간음설화로 이름 지어 양국의 설화 속에서 유사한 요소를 가진 설화를 추출해서 비교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다음은『三國遺事』〈기이(紀異) 제일〉에 있는 〈사금갑(射琴匣)〉의 이야기이다.

제二대 비처왕(毗處王)[혹은 炤智王이라고 쓴다] (중략) 왕이 (중략) 두 돼지가 싸우는 것을 보다가 홀연히 까마귀의 간 곳을 잊어버리고 길가에서 헤매고 있었다. 이때 한 노인이 못 가운데서 나와 글을 올리니, 걸봉에 씌어 있기를「이를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략) 왕이 그렇게 여겨 떼어보니 그 글에 〈금갑(琴匣)을 쏘라〉하였다. 왕이 곧 궁에 들어가 금갑을 쏘니, 거기에 내전에서 분수(焚修)하는 중이 궁주(宮主)와 몰래 사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복주(伏誅)되었다<sup>2)</sup>.

(『三國遺事』)

어떤 노인이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볼 수 있는神通력(神通力)을 가지고 있었고 승려와 궁주(宮主)가 사통(私通)하고 있는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는데, 그때 혹시 왕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사통하는 두 사람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왕은 오명을 남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언젠가 죽음을 당했을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노인의 예언이 맞아 두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던 것이다. 여기서 왕의 측근으로 왕을 모시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 정성을 들여 수도생활을 해야 했던 고승(高僧)이 왕이 살고 있는 궁중에 서 궁주와 사통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

신라에서는 6세기초에 법흥왕(法興王: 514-539)에 의해 처음으로 율령(律令)의 반포와 불교의 공인이 실현된 사실로 볼 때, 5세기의 소지왕 시대에는 여러 시련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이 설화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간음문제에 대한 적지 않는 관심을 알 수가 있다. 사통(私通)이라는 말이 『三國遺事』에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따라 고승의 간음 사건을 예언을 매개로 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今昔物語集』 卷29 第14話의 이야기이다.

今昔、延喜ノ御代ニ、天皇夜ル清涼殿ノ夜ルノ大臣ニ御マシケルニ、俄ニ藏人ヲ召ケレバ、藏人一人參タリケルニ、仰セ給ヒケル様、「此ノ辰巳ノ方ニ女ノ音ニテ泣ク者有リ。速ニ訊テ參レ」ト。藏人仰セヲ奉ハリテ、(中略)内裏ノ内ヲ求ムルニ、更ニ泣ク女無シ。夜深更ニタレバ人ノ氣色ダニ無ケレバ、返テ其ノ由ヲ奏スルニ、天皇、「尚吉ク訊ネヨ」ト仰セ給ヘバ、遂ニ九条堀河ノ辺ニ至ヌ。一ノ小家ノ有ルニ、女ノ泣ク音有リ。(中略) 返リ来テ、「『其ノ女ヲ攔ニ擲 テ可將參シ。其ノ女ハ心ノ内ニ謀ノ心ヲ以テ泣ク也』ト宣旨有リ」ト云ヘバ、藏人女ヲ擲サスルニ、女ノ云ク、「己ガ家ハ穢氣也。今夜盜人入り来テ、我ガ夫既ニ被殺ニタリ。其ノ死タル夫、家ノ内ニ未ダ有」ト云テ、音ヲ拳テ叫ブ事無限シ。(中略)「此ノ女大キナル犯有リ。而ルニ内ノ心ヲ隠シテ外ニ泣キ悲ム事有リ。速ニ法ニ任セテ勘問シテ、其ノ過ヲ可行シ」ト仰セ給ヒケレバ、檢非違使女ヲ給ハリテ罷出ヌ。夜明テ此レヲ勘問スルニ、(中略)此ノ女ハ蜜夫ト心ヲ合セテ実ノ夫ヲ殺セテケル也ケリ<sup>3)</sup>。

옛날 옛날에 연희(延喜)시대에<sup>4)</sup> (다이)고 천황이 밤에 세이료전(殿)의 침실에 계셨을 때, 갑자기 관리를 불러 한 관리가 갔더니, 천황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동남쪽에 여자의 우는

소기가 들린다. 바로 가서 찾아오너라。」고 하셨다. 관리는 말씀대로 (중략) 궁중 안을 찾아 봤지만, 울고 있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밤도 깊어지고 사람도 없기에 다시 돌아 가서 이런 사실을 보고했더니, 천황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잘 찾아 보라. 」고 하셨다. (중략) 마침내 구조호리카와(九条堀河)<sup>5)</sup> 주변까지 왔다. 그러더니, 한 작은 집이 있고, 거기서 여자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중략) 돌아와서 다시 보고했더니, 「『그 여자를 체포해서 데리고 오너라. 그 여자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울고 있는 것이다.』라는 천황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는 그 여자를 체포했다. 그 여자가 호소하기를 「제 집은 지금 상중(喪中)으로서 몸이 부정(不淨)합니다. 어제 밤, 도둑이 들어와서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남편의 사체는 아직 집안에 있습니다.」고 하면서 크게 울었다. (중략) 천황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는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사람들 앞에 울고 있는 것 뿐이라 즉각 법대로 규명하여 처벌하도록 해라.」고 하셔서 검비위사(檢非違使)는 그 여자를 연행했다. 날이 새어 이 여자를 신문했더니, 놀랍게도 이 여자는 간부(姦夫)와 결탁해서 남편을 죽인 것이었다. (『今昔物語集』)

이 이야기는 10세기초의 일본 천황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통력을 통해 살인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야기로서 천황을 찬미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제는 역시 신통력과 그것에 의한 예언에 있으며 그 대상은 간통사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설화에서도 신통력에 의한 예언이 맞아서 은폐(隱蔽)된 간통의 진상(眞相)은 사람들 눈앞에 드러난다. 여기서는 사통한 두 사람은 결탁해서 함께 남편을 죽인 일까지 일어나 이미 한 사람은 죽은 것이다.

이들 양국의 이야기를 비교하면 우선 우리는 주제와 소재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어느 쪽도 왕이나 천황이 주인공이 되어 있고 그들로 하여금 뛰어난 신통력이 나라를 돕고 있다. 둘째, 이 신통력으로 예언한 것은 남녀의 간통 또는 간통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며, 남녀의 간통문제가 이들 이야기의 대상이 되어 있다. 셋째, 두 사람이 아니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예언과 같이 그 간통의 결과는 남편이 아니면 두 사람의 범죄자가 죽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넷째, 이들 이야기는 고대국가의 법제가 완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간통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적 화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남녀간의 간음(姦淫)문제가 사람들의 큰 관심사였던 것을 알 수 있다.

〈射琴匣〉이야기는 아직 불교가 신라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는 불교 공인 전인 5세기의 이야기이며 이것에 비해 일본 이야기는 불교가 일본에서 공인되어 율령도 완성된 10세기의 이야기로서 양국의 설화는 상당히 시대적 차이가 있으나, 어느 쪽도 불교가 아직 귀족계층의 종교로서 일반 서민에게는 충분히 침투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이러는데 일치한다. 그 시절은 율령(律令)국가의 성립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직 실감이 안 나는 시기인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는 종래의 씨족중심사회 또는 촌락공동체가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제로 흡수되어 가는 시기로서 사람들이 전부터 믿어 온 무속 신앙이나 제사공동체로서의 촌락의 유대가 해체되어 가는 과도기이며 사람들이 그때까지의 마음의 지주를 잃고 공동체 대신에 국가법(國家法) 앞에 개인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극히 변화가 큰 때이다.

그 때 촌락공동체의 유대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은 불안과 소외 속에서 인간이 개인(個人)인 것을 자각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개인 의식의 발달과 동시에 간음문제가 부상하여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今昔物語集』卷26 第21話의 이야기이다

今昔、□国、□郡ニ住者有ケリ。(中略)二三日不返ケルニ、家ニ若キ妻独リ居タリ。其間ニ、一人ノ修行ノ僧来テ、貴ク経ヲ読テ、食物ヲコフ。(中略)女主経ヲ貴ムデ、上ニ呼上テ物ヲ供養スルニ、(中略)僧ノ云ク、「己ハ亦陰陽ノ方モ吉ク知り、靈驗新タナル祭ナドモ為ル」トイヘバ、(中略)女、「然テハ糸安キ事ナ、<sup>6)</sup>リ。然ハ其祭シ給テンヤ」ト云ニ、(中略)僧女トタダ二人、深キ山ニ入テ、(中略)祭文ヲ読テ祭畢ツ。女、「夫ノ無キ間ニ、微妙キ祈ヲモシツルカナ」ト思テ、急ギ返ルヲ、僧女ノ若クテ清氣ナルヲ見ニ、忽ニ愛欲ノ心發テ、万ノ事忘レヌ。然レバ、女ノ手ヲ捕ヘテ云ク、「我未ダ不習事也云ヘドモ、君ヲ見ニ、(中略)女辭テ遁レムトスレバ、(中略)僧刀ヲ拔テ、(中略)女、人モ無キ中ナレバ、為ベキ方モ無テ有ヲ、僧藪ノ中ニ引入テ、(中略)女難辭得クシテ、僧ノ本意ニ隨フ。(中略)其時シモ其ヲ過ケルニ、數ノ中ニ者ノソヨリソヨリト鳴テ動ケルヲ見テ、夫立留テ、「コノ藪ノ中ニ、鹿ノ有也ケリ」ト思テ、(中略)動ク所ニ指アテテ射タリケレバ、(中略)法師ノ女ノ上ニ重リタル最中ヲ射タル也ケリ<sup>7)</sup>。

옛날 옛날에, □지방의 □군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 (중략) (남편이) 이삼일 돌아오지 않아서 집에는 아내가 혼자 있었다. 그때 한 수도승이 와서 경을 읽고 음식을 빌었다. (중략) 이 여자 주인은 평소부터 경을 존경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기에 승려를 집안으로 모시고 음식을 대접했더니, (중략) 승려가 말하기를 「나는 원래 음양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영험이 뚜렷한 제사도 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략) 여자는 「그런 것이라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그 제사를 지내 주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서 (중략) 그 승려와 여자 단 두 사람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중략) 거기서 제문을 읽었다. 여자는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을 위해) 좋은 기도를 했구나.」하고 만족하게 생각해서 서둘러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 승려는 이 여자가 젊고 순진한 것을 알고 한 순간에 정욕에 지배되어 제정신을 잃었다. (중략) 여자의 손을 잡고, (중략) 여자가 잡은 손을 뿌리치고 도망하고 하니, 승려는 칼을 빼서 (중략) 사람이 없는 산중의 일로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중략) 여자는 승려가 시키는 대로했다. (중략) 바로 그때 그 아내의 남편이 거기를 지나고 있더니, 덩굴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낌새가 있었다. 그 남편은 머물어서 「이 덩굴 속에 사슴이 있군.」하고 생각하여 (중략) 그 움직이는 곳을 향해 화살을 쏘았더니 (중략) 여자 위에 승려가 엮어 있었으므로 그 승려의 등에 명중하였다. (『今昔物語集』)

이 이야기는 승려의 타락(墮落) 또는 인간의 번뇌(煩惱)로서의 애욕이 주제가 되어 있다. 아무리 열심히 수도생활을 하고 몸을 깨끗이 지키려고 노력해도 자기도 모르게 순간에 솟아 나오는 이성에 대한 정욕, 그 욕망 때문에 수도승은 간음(姦淫)을 범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잃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위의 설화와 같은 예언이 아니지만, 역시 승려의 간음을 소재로 삼고 있고, 간음한 결과는 죽음의 대가로 끝나고 있다. 여기서 여성은

그 신앙심으로 승려를 의심할 줄 몰랐고 그 순진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재난을 만나게 된 셈이며 여기서 간음은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한 간통이 아니었지만, 승려가 간부(姦夫)가 되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충격적인 줄거리는 <射琴匣>의 그것과 유사하다.

불교에서는 극락정토(極樂淨土) 또는 성불(成佛)을 방해하는 모든 욕망은 마음의 미혹(迷惑)이라고 해서 인간의 번뇌(煩惱)로 보았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은 모두 다 마음이 옮겨 있는 것을 방해하는 번뇌인데 그 중에서도 이성에 대한 그것은 사람을 쉽게 불도(佛道)의 길에서 탈선(脫線)시키는 가장 어려운 시련이며 수행생활을 방해해서 극락정토를 막는 것으로 봤다. 사람은 누구나 이 문제에 한번 걸리면 한 순간에 불도의 길을 일탈(逸脫)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수행생활을 하려는 사람을 대단히 고민하게 했음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당시 불교의 설법(說法)에 있어서 <애욕>의 문제가 되풀이해서 이야기되는 이유는 이 번뇌가 사람이 수행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과 동시에 이는 누구에게나 따라 다니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구원(救援)을 원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 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은『今昔物語集』卷 第30 第3話의 이야기이다.

近江守、〈此ノ淨藏ヲ以テ、娘ノ病ヲ加持セサセム〉ト思テ、構テ呼ケレバ、淨藏行ニケリ。  
(中略) 暫ハ此テ御マシテ祈ラセ給ヘト父母強ニ云ケレバ、淨藏云フニ隨テ暫ク有ケル程ニ、  
自然ラ繫ニ此ノ娘ヲ淨藏見テケルニ、忽ニ愛慾ノ心 萌シテ、更ニ他ノ事不思エザリケリ。  
亦娘モ其ノ氣色ヲ心得タリケルニヤ、然テ日未ヲ經ル程ニ何ナル隙力有ケム、遂ニ會ニケリ。  
其後、此ノ事隱ストスレドモ、自然ラ人粗ニ知ニケレバ、世ニモ聞エニケリ。然レバ  
世ノ人此ノ事ヲ云線ケルヲ、淨藏聞テ耻テ、其ノ家ニモ不行ズ成ニケリ。〈我レ此ル名ヲ  
取ツ、今ハ世ニモ不有ジ〉ト云テ、跡ヲ暗クシテ失ニケリ<sup>8)</sup>。

오우미(近江)의 관리는 「이 죠조(淨藏)에 부탁해서 우리 딸의 병을 고치자.」고 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를 오게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집으로) 왔다. (중략) 「잠시 여기에 계셔서 기도 해주십시오.」라고 그 부모가 부탁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죠조는 (그 부모의) 말대로 잠시 거기에 있었더니, 우연히 그 딸을 살짝 엿보았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애욕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부터 그는 아무런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 딸도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가. 이렇게 해서 며칠 지나고 나서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이 두 사람은) 드디어 정을 통했다. 이후 이 일을 숨기려고 했으나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 소문이 났다. (죠조는) 사람들이 자꾸 이 일을 화제로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집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이런 소문이 난 이상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다.」고 해서 그는 모습을 감추었다.  
(『今昔物語集』)

이렇게 이 설화에서는 애욕은 한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그의 이성(理性)을 잃게 하고 사람을 혼돈(混沌)의 미로(迷路)로 끌여가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젊은 승려는 이러한 애욕의 욕망에 잡혀서 오래 동안 수행생활을 통해 세워 온 모든 공덕(功德)을 한 순간에 잃은 것이다.

이상의 고찰로 당시 불교는 그때까지의 무속과 다른 입장에서 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무속에서는 인간의 정욕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욕망으로 보고 인간은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애욕>은 누구나 원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인생 고민의 중대한 원인이 되지 않았다. 애욕의 대상이 없어서 고민하는 일은 있어도 애욕의 대상이 나타나서 고민하거나 애욕을 느끼는 자기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은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애욕>은 불도의 길을 일탈시켜 사람의 극락정도를 막는 최대의 번뇌로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시련의 관문(關門)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간음이 불륜(不倫)의 이성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에 비해 <애욕>이란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의 욕욕에 대해 이것을 번뇌로 문제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 解脱說話

다음은 『三國遺事』 감통(感通) 제7에 있는 <광덕(廣德)과 엄장(嚴莊)>의 이야기이다.

문무왕(文武王)대에 사문(沙門) 광덕(廣德)과 엄장(嚴莊)이란 두 사람이 서로 친하여 밤낮으로 약속하기를, 먼저 안양(安養)으로 돌아가는 자는 모름지기 [서로] 알리자고 하였다. (중략) 어느날 일영(日影)은 붉은 빛을 띠고 송음(松陰)은 고요히 저물었는데, 창밖에 소리가 나며 말하기를 「나는 이미 서쪽으로 가니 그대는 잘 있다가 속히 나를 따라 오라」하였다. 엄장이 문을 열고 나가 보니 그 밖엔 천악(天樂) 소리가 나고 광명은 땅에 뽀뽀했다. 이튿날 엄장이 광덕의 거소를 방문하였더니 과연 광덕이 죽었다. 이에 그 처와 함께 유해를 거두어 호리(蒿里)를 만들고 나서 그 처에게 이르기를 「남편이 죽었으니 같이 사는 게 어떠하냐」하니, 그 처가 좋다 하여 드디어 유숙(留宿)하였다. 밤에 잘 때 남녀의 정을 통하려 하니 그가 부끄러이 여기며 말하기를 「법사가 서방정토(西方淨土)를 구함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하였다. (중략) 처가 말하기를 「부자(夫子)가 나와 십여 년이나 동거하였으되 아직 하룻저녁도 자리를 같이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더러운 짓을 하였으랴」(중략) 엄장이 그제야 몸을 깨끗이 하고 뉘우쳐 자책하며 한마음으로 관(觀)을 닦아 또한 극락으로 갔다<sup>9)</sup>. (『三國遺事』)

당시의 하층민의 부부가 신앙심을 위해 십여 년 동안이나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심이 얼마나 진지했고 순수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왕생(往生)설화의 불교설화로 알려져 있다. <원왕생가>의 배경설화로 “아미타 정토에의 왕생이 刻苦의 不邪淫생활로서의 精進과 그에 따른 他力에 의해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敎示한 목적으로 창출된 것”<sup>10)</sup>이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설화를 애욕 모티프의 입장에서 다시 보고자 한다. 광덕의 아내를 열녀로 보는 시각은 이미 장덕순이 설화의 분류에서 시도해 봤지만,<sup>11)</sup> 여기서는 신앙심으로 인해 그를 좋아하는 남자에게도 절대로 몸을 허락하지 않고 반대로 그를 교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게 하고 훌륭한 수도자로 기르기 위해 구실을 다하는 여성으로 보는 것이다.

다음은 『今昔物語集』卷15卷48話의 이야기이다.

今昔、近江守彦真ト云フ人有ケリ。其ノ妻伴ノ氏若ヨリ道心有テ、弥陀仏ヲ念ジ奉ケリ。而ル間、此ノ女彦真ト夫妻ト成テ、其ノ契リ深シト云ヘドモ、同ジ床ニ不臥ズシテ觸バヒ近付ク事無シ。常ニ身ヲ淨クシテ念仏ヲ唱フ。而ル間、女胎藏界ノ曼陀羅ノ御前ニ居テ、夫彦真ヲ呼テ語テ云ク「我レ年来汝ト夫妻ノ契リ有リト伝ヘドモ、同ジ床ニ不臥ズシテ、觸バヒ近付ク事無シ。然レドモ、定メテ其ノ罪無キニ非ジ。然レバ我レ汝ト同所ニ不居ジ。一家ヲ我レニ与ヘヨ」ト、「別ニ居テ、其ノ罪ヲ遁レム」ト。然レバ、彦真妻ノ云フニ隨テ、其ノ事ヲ受ツ<sup>12)</sup>。

옛날 옛날에, 오우미노카미 히코자네(近江守彦真)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 토모노우지(伴氏)는 젊을 때부터 도심(道心)이 있어서 (아)미타불을 믿고 있었다. 이 여인은 히코자네와 결혼하여 서로 깊은 애정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었지만 아직 남편과 잠자리를 함께 해본 적이 없었고 그의 몸에 접촉한 일도 없었으며 항상 몸을 깨끗이 지키고 염불을 외고 있었다. 어느 날, 여인은 태장계(胎藏界)의 만다라(曼陀羅) 앞에 앉아서 남편 히코자네를 불러 「저는 오래 동안 당신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잠자리를 함께 해본 적이 없고, 몸에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당신과 같은 곳에 살지 않습니다. 저에게 다른 집을 하나 주십시오. 따로따로 살고 그 죄를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히코자네는 아내의 말을 들어주었다. (『今昔物語集』)

이 이야기에서는 극락정토하기 위해서는 신심(身心)을 깨끗이 하고 단심(丹心) 염불을 외고 남녀관계를 금물로 하는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도 극락정토하기 위해 부인이 열심히 수도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남편도 부인을 따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인이 적극적으로 남편을 인도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위의 〈廣德과 嚴藏〉 이야기와 비교하면, 유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가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서도 극락왕생정토하기 위해 한번도 육체관계를 가지지 않는 숭고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여성이 그 신앙심 때문에 그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남자를 멀리하고 그를 개심(改心)시켜 색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길을 닦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남자를 기르는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며 셋째, 이들 이야기는 열심히 염불을 외고 극락정토에 왕생하려는 내세(來世)적 불교인 정토교 신앙이 사상적 배경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今昔物語集』卷17第33話의 이야기이다.

今昔、比叡山ノ山ニ若キ僧有リ。出家シテヨリ後、學問ノ志ハ有ト伝ヘドモ、遊ビ戯ニ心ヲ入テ、學問スル事無シ。(中略)僧立寄テ、其ノ女ニ云ク、「山ヨリ法輪ニ詣テマカリ返ルニ、日暮タレバ、此夜許リコノ殿ニ宿シ給ヒテムヤ」ト。(中略) 穴有。其ヨリ望ケバ、主ト思シキ女有リ。(中略)

年二十余許ノ程ト也。形チ美麗ニ姿嚴キ事並無シ。(中略) 人皆ナ静マリテ此ノ人モ寢ヌルナメリト思フ程ニ、此ノ立不畢ザリツル遣戸ヲ開テ、和ヲ拔足ニ寄テ、傍ニ副ヒ臥ニ、(中略)コノ人驚テ、「コハ誰ソ」ト云ヘバ、「然然也」ト云フニ、女ノ云ク、「貴キ人ト思テコソ宿シ奉ツレ。此ク御ケレバ悔クコソ」(中略)「速ニ山ニ返テ、經ヲ浮ベテ來給ヘ。其ノ時ニ忍テ本意ノ如ク陸ビ聞ム」ト。僧コレヲ聞テ、切ニ思エツル事モ止テ、夜モヤウヤクアケ方ニ成ヌレバ、「然ハ」トテ蜜ニ出ヌ。(中略)然レバ、彼ノ僧ノ好ム方ニ女ト成テ、學問ヲ勸メ給ヘル也<sup>13)</sup>。

옛날 옛날에 히에이산(比叡山)에 젊은 승려가 있었다. 출가하고 나서도 놀고 싶은 마음이 이기지 못해 학문을 등한히 하고 있었다. (중략) 승려는 그 여자에게 접근해서 「히에이산에서 출발해서 호오린사(法輪寺)에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해가 저물었으니 하루 밤만 묶여가게 해주시겠습니까?」고 물었다. (중략) 문에 구멍이 있었다. 이곳으로 들여다보니, 집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보였다. (중략) 나이는 스무 살 정도이다. 그 아름다움은 비교할 것이 없었다. (중략) 모두 잠들고 나서 저 사람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완전히 닫지 않는 미닫이를 열고 살짝 접근하여 그 여성 옆에 누었다. (중략) 여성은 퍼뜩 깨어 「누구십니까?」라고 했다. (승려가) 「이러 이러한 사람입니다.」고 했더니, 그 여성이 말하기를 「귀한 스님이라고 생각해서 방을 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시다니,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곧 바로 히에이산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경(經)을 완전히 암기하시고 나서 오십시오. 그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라고 했다. 승려는 그 말을 듣고 마음도 다시 가라앉고 이미 날도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라고 하고 몰래 방을 나갔다. (중략) 이런 식으로 (허공장보살은) 이 승려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 승려로 하여금 공부하게 한 것이다.

(『今昔物語集』)

이 이야기를 <廣徳과 嚴莊> 이야기와 비교하면 이것도 역시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 수행생활에 전념하지 못해 색욕(色慾)에 잡혀 해매고 있는 젊은 남자를 개심(改心)시켜 마음의 미혹을 끊게 하고 수행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의 주제가 유사하다. 특히 광덕의 이야기에 나오는 광덕의 아내가 “분황사의 종이 관음보살의 화신이었다. (중략) 관음보살이 그런 천한 몸을 하고 이 세상에 와서 중생을 제도했다”<sup>14)</sup>는 데 비해, 이 이야기도 역시 <(허공장보살은) 이 승려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 승려로 하여금 학문을 하게 한 것>이라는 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이들 이야기는 인간 번뇌로서의 애욕으로부터 해탈해서 극락정토를 이루려는 왕생(往生)설화이지만, 남자의 색욕을 끊게 하는 데 여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여성들은 색욕을 안고 접근한 남자를 반대로 설득시켜 수행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고 훌륭한 수행자로 만들었다. 여성을 통해 남자들이 개심하고 성불(成佛)했다는 점이 공통점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불교의 전통으로 볼 때, 그때까지의 여성멸시 또는 여성혐오의 사상과는 정반대이며 불교사상의 큰 변화를 볼 수 있다. 호오넨(法然)<sup>15)</sup>은 “여성은 영원히成佛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여성이기에 여성이 佛의 淨土에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sup>16)</sup>고 해서 여성은 일단 남자로 전생(轉生)하고 나서 성불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여성을 태어날 때부터 죄가 많고 더러운 존재로 보는 여성멸시(女性蔑視)는 일본 당시의 불교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태도인 것 같다.

다음은 『今昔物語集』 卷14 第3話의 이야기이다.

今昔、熊野ニ參ル二人ノ僧有ケリ、一人ハ年老タリ、一人ハ年若クシテ形メウ美麗也。牟婁ノ郡ニ至テ、人ノ屋ヲ借テ、二人共ニ宿ス。其ノ家ノ家ノ主、ヤモメニシテ若キ女也、(中略)コノ家主ノ女、宿タル若キ僧ノ美麗ナルヲ見テ、深ク愛慾ノ心ヲオコシテ、勲ニ勞リ養フ。而ルニ、夜ニ入テ、僧共既ニ寢ヌル時ニ、夜半許ニ家主ノ女、ヒソカニコノ若キ僧ノ寢タル所ニハヒ至テ、(中略)僧、驚キ覺テ、恐レ迷フ。女ノ云ハク、「我が家ニハ更ニ人ヲ不宿ズ。而ルニ、今夜、君ヲ宿ス事ハ、昼、君ヲ見始ツル時ヨリ夫ニセムト思フ心深シ。然レバ、(中略)僧、コレヲ聞テ大キニ恐レテ起居テ、女ニコタヘテ云ク、「我レ、宿願有ルニ依リテ、日ゴロ、身心精進ニシテ、(中略)速ニ君、コノ心ヲ可止シ」ト云テ、強ニ辭ブ<sup>17)</sup>。

옛날 옛날에 구마노(熊野)<sup>18)</sup>를 향하는 두 명의 승려가 있었다. 한 사람은 늙었지만, 또 한 사람은 젊고 아주 미남이었다. 이들은 무로군(牟婁郡)에 도착했는데 어떤 집을 빌려 숙박하기로 했다. 그 집의 주인은 젊은 과부이었다. (중략) 이 여자 주인은 젊은 미남의 승려를 보고 애욕(愛慾)을 일으켜 그를 대단히 친절하게 대접했다. 그리하여 밤이 되어 승려들이 자고 있을 때, 한밤중에 남몰래 자고 있는 젊은 승려 옆에 가서 (중략) 이 젊은 승려는 잠을 깨어 깜짝 놀랐고 두려워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자가 말하기를 「저 집은 이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방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들에게 허락한 것은 낮에 당신을 본 순간부터 당신을 내 남편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략) 젊은 승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놀랐고 바로 일어나서 여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소원이 있어서 평소에 금욕생활을 하고 있으니 (중략) 그런 마음은 즉시 버려야 됩니다.」고 해서 딱 잘라서 거절했다.

(『今昔物語集』)

이렇게 여성이 “수행(修行)을 방해하고 남자를 죄의 세계로 끌려가려고 유혹한다”<sup>19)</sup>는 생각은 당시의 불교가 가진 일반적인 시각이며 이것은 불교의 사회 침투와 함께 일본사회 전반에 확산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 사정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었으며 “元曉도 女人往生에 對해서는 (중략) 悲觀的인 見解를 表明했다.”<sup>20)</sup>고 한다. 당초 한국불교에서 여성을 경계했던 사실은 설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음은 『三國遺事』에 있는 塔象(탑상) 제4의 「南白月二聖 努勝夫得 恒恒朴朴(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의 이야기이다.

성덕왕(聖德王) 즉위八年이었는데, 어느날 날이 점차 저물어갈 무렵에 나이 한 二十된 娘子(娘子)가 있어 (중략) 향기를 풍기며 갑자기 북암(北庵)[鄉伝엔 南庵이라 함]에 와서 기숙하기를 청하면서 노래를 지어 바쳤는데, (중략) 박박이 말하기를 「사찰은 청정(淸淨)을 주로 하므로, 너는 가까이할 곳이 아니다. 지체치 말고 가라.」하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 [記에는내가 雜念이 없으니 血囊(肉色을 가리킴)으로 試驗치 말라 하였다]. 낭(娘)이 남암(南庵) [전하는

말에는 北庵이라 한다]으로 찾아가서 또한 전과 같이 청하였다. (중략) 부득이 듣고 놀라서 이르기를 「이 땅은 부녀가 더럽힐 데가 아니다<sup>21)</sup>. (『三國遺事』)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수행자는 여성을 <혈낭(血囊)> 즉 <육색(肉色)>의 상징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을 생각하는 것은 <잡념(雜念)>임으로 <청정(淸淨)>을 <부녀가 더럽힐 데가 아니다>, <너는 가까이할 곳이 아니다> 고 해서 물리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멸시는 결국 여성을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체(女體)로 보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남녀관계의 대명사인 <애욕> 자체가 이성과의 정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의 육체관계를 의미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남성들이 여성을 자신의 육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을 멸시하는 고대불교의 시각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여성에게 덮어씌움으로서 남성 자신의 죄까지 여성의 탓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런 여성차별은 일본 고대설화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이미 <간음설화>로서 고찰한 『今昔物語集』권 제30 제3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 이야기에서 승려 浄藏(淨藏)은 신병에 걸린 소녀를 고치기 위해 집에 갔다가 한번 그녀를 엿본 순간에 애욕에 지배되어 그 욕망에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그는 수행의 길을 탈선했지만, 결국 그와 상대의 여자는 인생을 날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말은 여성차별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토로한 편자의 교훈의 이야기로 끝난다.

다음은 『今昔物語集』권 제30 제3의 이야기의 결말 부분이다.

「今ハ此ノ事止メテ、偏ニ行ヒヲセム」ト思ケレドモ、尚愛慾ノ思ヒニ不勝ズシテ、其ノ夜忍テ京ニ出テ、彼ノ病者ノ家ニ行テ、構テ「然然」ト云入セタリケレバ、娘窃ニ呼入レテ會ニケリ。(中略) 此様ニ云通ス事度成ニケレバ、此ノ事、皆世ニ聞エニケリ。(中略) 此ク聞ニケレバ、祖モ不知シテ遂ニ不見ズ成ニケリ。此レハ女ノ心極テ慳キ也。浄藏心ヲ尽シテ云フトモ、女ノ不用ザラムニハ、不可叶ズ。然レバ心柄女ノ、身ヲ徒ニ成ツル也トゾ、世ノ人云繚ケルトナム語リ伝ヘタルトヤ<sup>22)</sup>。

(浄藏은) 「이제부터는 그 여자를 사모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로지 수행생활에만 몰두하자」고 결심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애욕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 그날 밤에 남몰래 수도에 가고 전에 병 걸린 그 사람의 집 앞에 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그가 온 이유를 설명했더니, 그 딸은 몰래 그를 불러 그는 그녀와 (다시 만나)정을 통했다. (중략) 이렇게 편지의 교환도 여러 번 되었기에 그 일은 (또) 소문이 났다. (중략) 이렇게 되니 이제는 (여자의)부모도 더 이상 (그 딸을) 감싸주지 못해 드디어 (그 딸을) 내버려두었다.

이것은 여자의 마음이 극히 나쁘기 때문이다. 실사 浄藏이 집요하게 했다고 해도 여자가 그것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는 자신의 탓으로 인생을 망쳤다」고 소문났다는 이야기이다. (『今昔物語集』)

이렇게 이 이야기는 애욕에 의한 수도승의 탈선(脫線)을 주제로 놓고 애욕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묘사하면서도 결국 결말에는 탈선(脫線)의 책임이 있는 승려의 타락(墮落)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소녀인 여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탈선의 모든 책임을 무조건 여자의 탓으로 책임전가(責任轉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고대불교의 여성멸시는 여성차별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남녀간의 죄는 무조건 여성에 있고 여자가 남자를 더럽힌다는 논법이다. 여자는 원래 더러운 존재이기에 여자와 관계하면 남자까지 더러워진다. 그래서 여자와 관계하지 말라는 논리이다.

물론 불교에서 여성을 죄악시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성의 매력이 강해서 남자는 그 아름다운 자극에서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자극에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이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힘껏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여성 멸시는 남자가 애욕에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욕에 대한 미련을 끊기 위해서이다. 세상의 욕망을 떠나기 위해서 고의로 하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양국의 설화에서는 여성을 죄악시하는 것에 일관하거나 애욕을 피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여성을 애욕을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도자로서 세움으로서 남녀가 애욕의 번뇌를 해탈하는 숭고한 정신을 묘사하고 있다.

#### 4. 結論

상대(上代)시대를 넘어서 통일국가가 형성되고 난 후인 고대시대에는 남녀가 집단적으로 함께 놀이를 했던 과거의 시대와 달리 사람들이 그 때까지의 남녀관계의 습관을 문제시하고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싸우기 시작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는 옛날부터 내려 온 무속(巫俗)적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은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존재에 눈뜨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自我)의 눈뜨기는 인간 개인에 큰 갈등을 초래했다. 이것이 바로 애욕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이다. 사랑은 원래 정신적인 것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불변의 것이기 때문에 남녀관계에 있어서 정신적 사랑을 추구하게 된 인간은 그 사랑의 본질에 배반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불교는 극락정토에 가기 위해 애욕을 버리라고 해서 인간에게 이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과의 싸움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했지만, 인간은 이 시기에 이미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정신적 사랑의 관계를 찾고 있어서 자신의 내부로부터 솟아오르는 순간적인 욕욕의 욕망과 싸우게 되고 이들 대립하는 두 가지의 지향에 의해 스스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注】

- 1) 矢野尊義「가가이(カガヒ)에 있어서의 사랑의 문제」(韓國日本文學會『日本文學研究』第2輯 2000. pp.130-134.)
- 2) 一然 外/李丙燾(訳)『韓國의 民俗, 宗教思想』三省出版社 1977. p.70.
- 3) 国東文麿 外(校,註)『今昔物語集 四』小学館 1976. pp.370-372.
- 4) 10世紀初期, 醍醐天皇在位の 시대.
- 5) 天皇이 사는 宮中을 중심으로 唐國의 長安을 모방해서 京都에 만들려진 平安京(794)의 最南端의 변두리.
- 6) 原文에서 <ナルナリ>의 音便形 <ナンナリ>의 撥音が 無表記로 되어 있다.
- 7) 国東文麿 外(校,註)『今昔物語集 三』小学館 1974. pp.627-629.
- 8) 山田孝雄 外(校,註)『今昔物語集五』岩波書店 1963. p.218.
- 9) 李丙燾(1977) 前掲書, pp.242-243.
- 10) 上掲書. p.225.
- 11) 張徳順『韓國說話文學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78. p.413.
- 12) 国東文麿 外(校,註)『今昔物語集 二』小学館 1972. pp.160-161.
- 13) 国東文麿 外(校,註)『今昔物語集 二』小学館 1972. pp.421-425.
- 14) 조동일『제3판 한국문학통사 1』지식산업사 1994. p.174.
- 15) 法然(1133-1212). 平安末期의 淨土宗의 宗祖. 親鸞의 師. 法然은 女性의 往生이나 成仏을 否定하는 古代仏教에 대해 <變成男子>나 <轉女成男>을 통해 女人往生이 가능한 것을 설교했다.
- 16) 조동일(1994) 前掲書, p.41.
- 17) 山田孝雄 外(校,註)『今昔物語集 三』岩波書店 1961. p.277.
- 18) 和歌山縣에 있는 熊野三山. 本宮, 新宮, 那智山을 가리키며 平安時代以後는 熊野信仰이 유행했다.
- 19) 笠原一男『日本史にみる地獄と極楽』日本放送出版協會 1976. p.43.
- 20) 金東旭『韓國歌謠의 研究』乙酉文化社 1961. p.98.
- 21) 李丙燾(1977) 前掲書, p.177
- 22) 山田孝雄(1963) 前掲書, pp.219-220.

【参考文献】

- 金承璨 『韓國上古文學論』 새문社 1987.
- 김현양 외(역) 『譯註 殊異傳 逸文』 박이정 1996.
- 東國大學校附設 韓國文學研究所 『韓國文學의 思想的研究(上)』 太學社 1981.
- 辛鍾遠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1992.
- 一然 外/李丙燾 外(譯) 『韓國의 民俗, 宗教思想』 三省出版社 1977.
- 張德順 『韓國古典文學의 理解』 박이정 1995.
- 조동일 『제3판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94.
- 笠原一男 『日本史にみる地獄と極樂』 日本放送出版協會 1976.
- 鎌田正 外 『漢語林』 大修館書店 1989.
- 国東文磨 外(校,註) 『今昔物語集 二』 小学館 1972.
- \_\_\_\_\_ 『 - 三』 - 1974.
- \_\_\_\_\_ 『 - 四』 - 1976.

A Study on the Motif of Lust in Ancient Narratives  
- Comparative Literature of Japanese and Korean Narratives -

Yano, Takayoshi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ust' motif on the ancient narratives of Japan and Korea through the method of comparative literature. As village cooperation, which has been supported with the power of Shamanism, started to collapse through the formation of ancient nations or the influences of Buddhism, many people began to realize the value of individual existence. Accordingly people changed their recognition about the relationship of man and woman.

People c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dultery and regard the lust of flesh as one of the big problems of human being. Their sexual deed between man and woman came to be understood as sinful and in this thought lies the cause of agony. The narratives about Buddhistic salvation were connected with a woman who tried to overcome the force of sin. Then in the view of Buddhist, women made men fall. In these narratives, however a woman made a man pure and the man became a wonderful inmate of a monastery. Finally, we can say that spiritual love made the couple overcome the desire of Sin.

住 所 : 韓國 서울시 관진구 군자동 98번지 세종대학교  
電 話 : 02-3408-3116 (Home Tel: 031-796-2328)  
E-mail : yano@kunjasejong.ac.kr

\* 본고에 나오는 일본 쪽 문헌의 일본어 번역은 필자가 한 것이다.

\*\* 일본 쪽의 책제목 혹은 설화 제목 등은 처음에 원래의 발음대로 한글로 표시하고 다음부터는 한자만으로 표시했다.